

지역 매아리

KTX 정읍역 주변 부지 활용 건의

부안해경, 고립된 일가족 구조

부안 공항 앞 개삼에서 관광 중 고립된 가족 5명이 물때 놓쳐 고립돼 부안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부안해경에 따르면 7일 오후 4시 8분경 이들은 최초(55, 익산시)씨 가족 5명이 관광차 공항 개삼에 입도하여 조개채취 중 물때를 놓쳐 고립되었다.

신고를 받은 부안 해경은 즉시 변신파 출소와 민간해양구조선을 급파하여 합동으로 고립자를 구조하였고, 구조된 최초 씨 가족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갯벌에 물이 들어 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차올라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어 밀물시간 때 알람을 맞춰서 미리 빠져 나와야 사고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고창 전통시장, 한가위 이벤트 진행

고창군이 고창전통시장에서 추석맞이 이벤트를 개최했다.

행사기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보기 행사를 시작으로 경품타기 행사, 아줌마 팔씨름대회, 십전대보탕 만들기 박람회,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또한 고창 관광객들에게 모양상임구에서 무료요양원 행사를 통해 관광객들이 고창전통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고창전통시장을 찾은 관광객은 "고창 전통시장에서 명절 장보기도 하고 즐거운 체험거리도 참여하면서 알뜰쇼핑을 할 수 있었다"며 "고창전통시장에서 좋은 인상을 받았으며 앞으로 고창에 올 때면 꼭 전통시장에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경찰서, 명절 치안 기간 압목지 일꾼 발골 격려

고창경찰서 청문감사실이 명절 집중치안기간 중 묵묵히 자기소임을 다한 직원들을 발골 격려했다.

청문감사실에서는 본서와 지·파출소들을 방문 동료직원들의 고충 및 건의사항을 듣고 송신수발하는 직원들을 발골 경찰서장 정려장을 전수했다.

직원들은 "추석 특방 기간 치안유지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신경 썼는데 방문 격려도 해주고 장려장도 전수해 주니 열심히 일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현수 서장은 "묵묵히 본인의 임무에 충실해 준 직원들에게 고맙고 365일 고창 치안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김생기 정읍시장, "열차제어 시스템 연구사업 지장없는 범위 내 유상 매도해야"

김생기 시장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과 면담하고 철도시설공단 소유 KTX 정읍역(이하 정읍역) 주변 부지 활용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정읍역 이용객과 시민들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읍역 주변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설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정읍역 전면부 일부를 KRTCS(한국형 열차제어 시스템) 연구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에 유상으로 매도할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 부지를 매입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활용하고 KTX 경제권 투자 선도사업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정읍역 후면부 부지는 시에 무상 임대해 쓸 것을 요청했다.

후면부 부지를 활용해 호남고속철도 개통 이후 늘어나고 있는 KTX 정읍역 이용객과 차량, 대형버스 주차 공간 부족으로 초래되는 불편을 해소하

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정읍역 주변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류지로 남은 KTX 호남선 작업장 부지는 한국철도시설공

단에서 별도의 활용 방안을 수립해



김생기 시장이 최근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영일 이사장과 면담하고 철도시설공단 소유 KTX 정읍역 주변 부지 활용을 건의했다.

줄 것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이사장은 "전면부 유상 매도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후면부 주차장 무상사용은 현행법상 어려움이 있으며, 호남선 작업장부지 활용 방안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재능기부 활발

재능기부단 30여명, 노후 전기 수리·전등 교체 등에 '구슬땀'

고창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가 재능기부 활동으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고창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 재능기부단 30여명은 최근 아산면 대가마을, 고수면 남산마을의 어르신 댁을 찾아 노후 전기 수리와 전등 교체, 도배 문고리 수리 등 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구슬땀을 흘렸다.

또 이날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툄닭, 부침개 등 음식을 대접하면서 귀농인과 마을 주민간의 화합을 다졌다.

대가마을 한 주민은 "귀농귀촌인들이 마을에 찾아와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며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 정을 나누는 기회를 만들면서 더 가까운 이웃사촌으로 느껴지고 앞으로도 화합하는 기회가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귀농어귀촌지원센터 홍성문 재능기부단장은 "귀농귀촌인들의 재능이 어르신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더욱 재능기부 활동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 귀농어귀촌지원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재능기부단을 구성해 매월 1~2회씩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고창=김영식기자

고창군 무장면, 추석맞이 민민노래자랑 성료

고창군 무장면이 '제31회 추석맞이 민민 노래자랑'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노래자랑은 최근 무장면 애향회(회장 이계명) 주관으로 무장면 체육문화센터 광장에서 열렸으며, 추석

맞이 행사를 맞아 고창을 찾은 재외군민과 면민 등 2000여명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쾌한 입담으로 유명한 개그맨 오경태가 행

사를 진행하고, 조항조, 소명, 이재나 등 무명가수가 출연했다.

각 마을을 대표한 주민 20여명이 노래 실력을 겨뤘고, 화려한 불꽃놀이와 대형 냉장고, TV, 세탁기 등 풍성한 경품 추첨으로 무장면민과 재외군민에게 즐거움을 선물했다.

이계명 무장면장은 "민족의 추석명절 고향을 찾아주시는 재외군민 여러분과 고된 농사일로 심신이 지친

민민 여러분을 위해 즐거움 가득한 노래자랑을 마련했다며, 무장면민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우정 군수는 "고창을 찾은 귀성객과 민민들이 즐거운 한마당을 통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6.25 고부 피학살도 위령제·참배 행사 희생된 영혼 추모·유가족 위로

정읍시가 최근 고부면 압석리 6.25 피학살묘(이하 고부 피학살묘) 현지에서 위령제와 참배 행사를 가졌다.

6.25 전쟁 당시 희생된 영혼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 자리에는 김생기 시장과 정읍시의회 유진섭 의장, 보훈단체장과 기관단체장,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고부면 두승산 소재 피학살 유적지 주위로 제(祭)를 올리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며 명복을 빌었다.

6.25 고부피학살묘는 6.25 당시 북한군에게 희생당한 이들을 안장한 곳이다. 당시 북한군은 군경과

종교인 등 방공인사 500여명을 정읍경찰서에 감금한 후 9월 27일 그중 150명을 고부 폐탄광에서 무자비하게 학살 또는 생매장했다.

이는 비극의 현장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생존자(故피학기/영원된 영성리)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시는 94년 유골 발굴에 나서 1995년 유골을 인양하여 고부 현지에 묘역을 조성했다.

한편 폐탄광 학살 이후 정읍경찰서에 남아있던 350명 감금된 체불타 숨졌는데, 연고자를 찾지 못한 42명은 충무공원에 안장(42주 지묘)됐다가 2015년 4월 고부 피학살묘에 합장됐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 총체사료용벼 수확 현장 평가회 가져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총체사료용벼(이하 총체벼) 수확 현장 평가회를 가졌다.

정읍면에서 열린 평가회에는 농업인들 비롯 농협과 관계기관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기술센터는 "총체사료용 벼 경제성 제고와 쌀 수급조절 시범사업"으로 정읍면 5ha에 '영우'와 '목양', '목우'를 재배했다"고 밝혔다.

국립축산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벼 생산(량) 조정과 함께 조사료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총체벼 생산 확대 대책이 주목받고 있다.

총체벼는 조사료 생산을 위한 추가 비용 부담이 없으며, 수확이 빨라 작부 체계를 다양화할 수 있다.

게다가 총체벼는 가족들의 선호도도 높다.

관련해 국립축산과학원이 실시한 총체벼 선호도시험 결과에 따르면 조사료 품목 중에서 총체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총체벼, 티모시, 이탈리안리그라스, 총체보리 순이다.

더불어 총체벼를 급여하면 1+ 등급 이상의 생산 비율도 높아지는 등 축산물 품질 향상에 효과적이다.

한우를 대상으로 일반 TMR과 총체벼 TMR을 각각 급여해 사육한 소의 육질과 육량 등급을 비교한 결과 총체벼 TMR을 먹인 한우가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평가회를 토대로 총체벼를 확대해 벼 과잉 생산에 따른 벼의 가격 하락을 막고, 사료 작물 연중 생산과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GIF SET 1 1.5L | 750ml 2ea, 잔 2ea/16% | GIF SET 2 2L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 SET 3 3L | 750ml 1ea/12% | GIF SET 4 4L | 500ml 2ea, 잔 2ea/12% | GIF SET 5 5L | 375ml 5ea/13% | GIF SET 6 6L | 500ml 3ea/12%, 600ml 1ea/13%, 잔 1ea, 오프너 | GIF SET 일반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품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결핍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짙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 뽕주
Premium Otdi Wine